

건강 칼럼

중이염부터 얼굴 기형까지 올 수 있는 '아데노이드 비대증'

평소 코막힘과 코골이로 고생하고 있다면 아데노이드 비대증을 의심해보자. 생소하지만 의외로 흔하고 위험한 질병이다. 간단한 절제수술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방치하면 얼굴이 변형될 뿐 아니라 성격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다.



최영득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전북지부 원장

▲ 정상 세균총-면역반응의 평형이 깨져 발생

6살 침열이(가명)는 항상 코가 막혀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경우가 많으며 밤에는 어른처럼 코를 곤다. 자는 모습을 보면 등을 대고 바로 누워 자는 경우보다 옆으로 자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계다가 감기라도 걸렸다 하면 코골이뿐만 아니라 호흡이 막히는 증상까지 나타난다. 병원에 가면 편도가 좀 크긴 하지만 성장하면서 작아진다고나 비열이 있다는 등의 진단으로 약을 처방 받았는데 큰 효과는 없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편도가 많이 크고 아데노이드 비대증이 있다고 '편도-아데노이드' 수술을 권유받았다.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수술을 받은 후 침열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코막힘이 없어지고 코골이도 없어졌다. 위의 사례는 아데노이드 비대증

환자의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병력이다. 아데노이드란 비인두의 상벽과 후벽에 위치한 소엽상의 림프조직으로 이조직이 증식하는 것을 '아데노이드 비대증'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아데노이드는 출생 시 매우 작으나 만 1~4세까지 면역작용이 증가하면서 점점 커지고 그 이후 퇴화한다. 하지만 반복되는 바이러스성 또는 세균성 감염, 병원균의 군집, 간접흡연 등으로 아데노이드의 정상 세균총과 면역반응 간의 평형이 깨지면서 크기가 커지게 되어 아데노이드 비대증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아데노이드 비대증이 있는 아이는 편도 비대증도 같이 동반되는데 이러한 경우 목 속은 편도 때문에 막혀 있고, 코 뒤는 아데노이드 조직에 의해 막혀 있기 때문에 코를 심하게 골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생겨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게 된다.

▲ 중이염·부비동염부터 얼굴 기형까지 다양한 합병증 유발

소아가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성장호르몬 분비가 감소되어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작은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뇌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쳐 집중력이 또래에 비해 낮아 산만해진다. 그밖에, 아데노이드 비대증으로 인하여 귀와 연결되는 유스타키오관이 막혀 중이염도 자주 생길 수 있으며, 코로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 부비동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아데노이드 비대증을 방치하면 오랜 기간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되어 얼굴의 길이가 길고 아래턱이 후방으로 치우쳐 치아의 교합이 잘 맞지 않는 소위 '아데노이드형' 얼굴의 안면골 변형까지 나타날 수 있다.

▲ X선 검사 진단과 수술로 쉽게 치료 가능

아데노이드 비대증은 X선 검사, 내시경 검사 등으로 진단 가능하다. 두개 측면 단순촬영에서 관찰되는 아데노이드-비인두의 비율은 임상 증상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시경으로는 후비공이 아데노이드 조직으로 폐쇄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아데노이드염이 있는 경우 표면의 농성분비물을 확인할 수 있다.

아데노이드 비대증의 치료는 아데노이드를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다. 아데노이드 비대증으로 인한 만성 삼출성중이염, 만성적인 코막힘, 심한 구강호흡 및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의 경우 수술로 인해 개선 가능하다.

수술은 대부분 전신마취 하에 시행되며, 과거에는 수술 후 재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미세흡인절삭기나 고주파 절삭기 등을 이용하여 아데노이드를 대부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률이 매우 낮아졌다.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병증을 방치해 자칫 문제를 키울 수 있다. 아이의 잠버릇, 호흡 상태를 유심히 지켜보고, 평소 감기를 받게 해 아데노이드와 함께 문제의 싹을 자르는데 것이 가장 좋다.

사설

소외된 신규 현안도 주목해야

전북 발전을 위한 목소리들이 연일 크게 들리는 나날이다. 대통령이 전북의 현안을 챙기겠다고 약속한 만큼 능동적으로 움직여야겠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소외된 신규 현안에도 주목해야겠다는 것이다. 지역 발전을 견인해왔던 사업들이 오래도록 소외된 채로 있는데 이것은 도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구체적인 작업이 없이 시간만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된다. 지난날 여러 번 주문했던 것을 여기 또 반복하는 것은 그래서이다. 지금이야말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을 낼 때이다.

무슨 현안이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지역 발전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지역 발전을 이끌어주리라는 새만금 사업과 탄소산업과 식품 클러스터 사업들을 보아도 그렇다. 박근혜 정부 때 후속책을 내놓으며 잔결음을 보일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게 다 덕담 수준에 불과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고 실제로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으면 지역 민심무마음 언론 플레이 정도로 밖에 달리 판단되지 않는다.

도민들이 기대했던 것과 비교해 턱없이 못미치니 하는 말이다. 그러나 소외된 현안 사업들이야 오죽하겠는가.

전북도는 소외된 발전 현안 사업에도 힘을 쏟아야겠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온전히 발휘를 해야 한다. 지역 발전의 주목적은 지역 경제와 살림살이의 발전이다. 전북도는 도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큰 데 나중엔 그 결과물을 보면 그에 못 미치니 유감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예산증액을 위해 체크할 것은 미리 체크 해둬야 한다. 소외된 발전 현안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려면 그래야 한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과 관련해 날마다 생각이 많아야 한다. 다른 지역보다 뒤처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아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국책 사업 그에 못지 않게 소외된 현안사업들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 그러려면 전북도는 끈덕지게 실무작업을 벌여 나가야 한다. 전북도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소외된 신규사업들을 위해서도 후진책을 강화해야겠다.

전북의 인구 감소 현상 고민해야 한다

인구 감소 현상이 여전히 심각하다. 저번에 행자부가 주민등록 인구를 조사한 결과 보고를 볼 때도 아쉬웠지만 지금은 그 정세가 더 하다. 남원시는 말할 것도 없고 김제시와 정읍시도 하릴없이 인구가 줄고 있다니 말이다. 심지어는 익산시마저 2000년 이후 인구 감소를 말하고 있으니 앞으로가 걱정이다. 전북의 인구가 2백만이라고 하지만 그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데 이따가가는 180만 명정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

전북도는 인구 감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겠다. 전북도는 인구 감소세가 둔화 됐다는 식의 보도로 실상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전북도가 전개해온 인구 유입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는 거주 인구의 변화에 대해서 보다 정직해야 한다. 인구 감소세가 둔화됐다는 보고만으로는 도민들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가 없다.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 전북 지역은 인구 하향 고착화 현상을 보인다 오래되었던 저출산 현상마저 오래돼 도내 신세대들의 수도 줄고 있다. 학생수가 줄고 있는 걸 보면 그

걸 알 수가 있다. 예전의 보도가 생각나는 오늘날이다. 그 기사가 나왔을 때 전년도에 비해 초등학생은 2365명이 줄었고, 중학생은 5521명이 줄었고, 고등학생은 1095명이 줄었다는 그 내용 말이다. 그것은 현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 반갑지 않다. 2020년이면 도내 고등학생이 30%나 감소할 거라는 보도도 저번에 있었는데 전북도의 생각이 어떤 지 궁금하다. 2020년이라면 앞으로 만 2년하고 7개월여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벌써부터 걱정이다. 중학생이 대폭으로 줄었으니 이같은 걱정이 허튼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전북도는 도내 거주 인구의 동향에도 주목해야겠다. 남원시의 인구가 완주군의 인구보다 적은 거 말이다. 완주군은 군내에 읍이 두 개나 있으니 인구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동부권의 무주진안 정수도 인구 감소가 심각한 것은 마찬가지다. 일자리며 교육 문제 해결할 게 산적해있다면 거주 인구가 불어날 터이 없다. 두루 분발해 마땅한 지금이 아닐 수 없다.

독자제언

금은방 책략절도 조심하자

절도, 강도 등 생계형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 중 가장 표적이 되기 쉽고 고가의 귀금속이 전 시되어 있는 금은방을 빼 놓을 수 없다.

대부분의 금은방들이 무인경비시스템이나 별도의 CCTV, 지구대 및 파출소와 연계된 비상벨 등을 설치하여 절도 범죄를 예방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신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쉽게 귀금속을 범인에게 빼앗기고 만다. 바로 '책략절도'이다. 기방행위가 있었다더라도 그것이 점유침탈의 한 방법에 불과하고 그것에 의한 재물의 처분(교부)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때에는 절도가 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견내받고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실제 지구대 주간근무 중 그런 일이 있었다. 고가의 귀금속을 몸에 착용한 채 주인에게 가까운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돈을 가져와 계산을 한다고 하며 가게 앞에 세워놓은 자신의 차량을 가리키며 차량키를 맡겨놓고 금방 갔다 온다고 하였다. 주인 입장에서는 차량키도 맡기고 가서 그러려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참이 지나도 안 오자 신고를 한 것이다. 현장에 출동하여 차량을 조회해 본 결과 도난 차량이었다.

이렇게 사람을 너무 믿은 나머지 값비싼 귀금속을 불과 몇 분 사이에 도난당한 것이다.

눈 뜨고 범죄를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금은방을 관리하는 분들은 책략절도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민약의 상황에 대비해 CCTV를 화질 이 좋은 것으로 교체하고 녹화가 잘 되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진제 전주완성경찰서 화산지구대 경찰

독자제언

성평등에 대한 공감대로 젠더폭력 근절을

새 정부의 젠더폭력 근절관련 공약을 한번쯤 들어봤지만 용어 자체는 다소 생소할 것이다. 젠더폭력은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포함한 상대 성에 대한 혐오를 담고 저지르는 신체적·성적·정서적 폭력 등'을 말한다. 특히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몰래카메라 범죄, 여성혐오범죄 등을 포함하여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 할 것으로 보인다.

1년 전 포스트잇 추모를 일으켰던 '강남역 살인사건'은 처음에는 조현병 환자의 '뭉치마살인'으로 알려졌지만, 여자들에게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인의 진술과 여성만 노린 증거가 추가적으로 공개되면서 '여성혐오 범죄'로 더욱 부각되었다. 이 사건 이후 젠더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주의요구가 커져 젠더폭력 방지 법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은 대표적인 가까운 사람에 의한 젠더폭력으로 최근 발생이 급증하고 수위로 더욱 심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폭력에 대한 인식은 이전보다 많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계속되는 폭력으로 괴로워하는 피해자들도 많다.

다행히도 앞으로는 법 제정과 등 피해자 보호장치 마련으로 범죄예방과 더불어 성폭력 범죄 등 젠더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시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성차별과 혐오 문제는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남성들도 얼마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성차별과 성 불평등에 대해 인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

김소정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도덕중심·지역중심 전주매일